

성주 읍지 『경산지』의 파판과 그 정치적 함의*

박인호**

【 차례 】

1. 머리말
2. 『경산지』의 편찬과 내용
 - 1) 성주 읍지의 편찬과정과 『경산지』의 편찬
 - 2) 『경산지』의 체재와 내용
3. 『경산지』의 파판과 함의
 - 1) 『경산지』의 파판
 - 2) 정치적 함의
4. 맺음말

【 국문초록 】

성주 읍지 『京山志』는 16-17세기 사찬읍지가 광범위하게 편찬되었던 시기에 李元禎에 의해 편찬되었다. 『경산지』는 서인계 선현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경상감사에 의해 판목이 불태워졌으며, 그 내용이 중앙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경산지』의 편찬 과정과 내용을 살펴본 다음, 破板이 이루어진 시대적 배경과 파판의 정치적 숨의를 살펴보았다.

* 이 연구는 금오공과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지원된 논문임.

** 금오공과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교수

성주 읍지 『경산지』는 이원정이 1668년 경 편찬을 시작하여 1677년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1682년 경상감사 李秀彦은 李珥·趙憲과 尹斗壽·鄭澈 등 신정을 헐뜯고, 또한 金尙憲, 宋時烈, 宋浚吉 등에 대해 함부로 말을 지어내었다는 혐의로 『경산지』의 판목을 폐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당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이원정은 현종대 예송에서 영남 남인계 인물들이 주도한 상소의 배후 인물로 지목받고 있었다. 또한 1680년 경신환국 이전까지 서인측으로부터 남인계의 주론자로 간주되었다.

1682년 경상감사 李秀彦은 『경산지』에서 보이는 서인계 인물들에 대한 서술을 의도적인 왜곡으로 간주하였으며, 이것이 破板과 焚毀 요청 단계로 나타났다. 그런데 이수언은 송시열의 제자로, 경상감사 재직시 영남 지역의 서인계 진출을 크게 원조하였던 인물이었다.

1682년 이수언의 『경산지』 판은 1682년 대구의 서인 거점인 尙德祠 건립과 1681-1682년 인동 향전에서 남인계 士人の 致死 처리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영남 지역 對南人 강경책의 소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산지』의 판목을 가져온 부분은 후일 성주에서 읍지를 편찬하면서 수정과 삭제를 거치게 되었지만, 이러한 破板과 焚毀 논의가 정치적 배경에서 나왔다는 점은 숙종대 당파를 둘러싼 사상적, 이념적 배타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경산지』, 『성주지』, 『성산지』, 사찬 읍지, 상덕사

1. 머리말

전통사회에서 책의 출판이 정치적 논의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었다.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세조는 8도 관찰사에게 비기류를 수거할 것을

지시하고 있다.¹⁾ 이때만 하더라도 개인 소장을 금지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조선 중기 이후에는 사화가 이어지면서 정치적으로 사화에 연계된 인물의 문집과 저작물이 금서로 지정되었다. 이에 따라 학문적 저작물이 정치적 이유로 탄압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조선 후기에는 당쟁이 격렬해지면서 저작물 자체가 정치성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학문적 예서나 철학서조차 금지 대상이 되었다. 역사서도 이러한 금지 대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었다.

이 논문은 17세기 당쟁이 격렬하게 전개되었던 숙종대에 『경산지』를 두고 일어난 논의를 중심으로 당시의 학문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려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성주 읍지 『京山志』는 16-17세기 사찬읍지가 광범위하게 편찬되었던 시기에 영남 남인의 대표적인 주론자였던 李元禎(1622-1680)이 편찬하였다. 그러나 『경산지』는 서인계 선현을 모욕하였다는 혐의로 경상도 감사에 의해 판목이 불태워졌으며, 그 내용이 중앙에서도 논란이 되었다.

여기서는 『경산지』의 편찬과정과 내용을 살펴본 다음, 破板이 이루어진 시대적 배경과 그 정치적 숨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으로 책의 출판과 금서의 경향을 통해 조선후기의 사상적 배타성과 이념화 경향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1) 『세조실록』 권7, 세조 3년 5월 무자(26일).

2. 성주 읍지의 편찬과 내용

1) 성주 읍지의 편찬 과정과 『경산지』의 편찬

조선 중기 鄭述(1543-1620)가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읍지를 편찬하면서, 성주 지역에서도 읍지 편찬 필요성이 고조되었을 것이나 쉽게 읍지의 편찬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성주 지역 읍지의 편찬에 대한 발의는 정구와 함께 이 시기 학문을 이끌어나갔던 張顯光(1554-1637)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장현광은 1635년(인조 13) 자신의 외가²⁾인 성주가 사림 인물들이 잇따라 나온 곳이었으나 문헌이 없던 점을 안타깝게 여겨 성주 출신인 金輳³⁾와 呂燦⁴⁾에게 성주 읍지를 편찬하도록 하였다. 이들은 일을 진척시키지 위해 지역에서 기록에 능하였던 都世純과 함께 집필에 착수했다.⁵⁾ 그러나 서면과 남면에 대해 기록하면서 일이 그다지 진척되지 못

2) 장현광의 외조부는 성산이씨 李彭錫이다. 월항면 巖浦에서 살았다(『경산지』 1, 「각방, <柳等洞>, 巖浦村).

3) 金輳(1564-1635)의 자는 志遠, 호는 雲巖, 본관은 海平이다. 한강과 동강의 제자이다. 동강이 안동부사에서 회령으로 귀양 갔을 때 동문 제자들과 같이 스승을 배종하여 배소에서 면학하였다. 특히 김우옹의 『續綱目』 편찬 사업을 도왔다(『성산지』 4, 「인물」 및 『東岡及門錄』).

4) 呂燦(1579-1646)의 자는 晦伯, 호는 石村이다. 呂允恕의 아들이다. 한강 문하에서 수업하면서 예학에 힘을 기울였다. 석담 이윤우, 등암 배상룡, 백천 이천봉 등과 교류하였다. 병자호란 때 의병을 일으켰으나 화의가 이루어졌다는 말을 듣고 돌아왔다. 이현일이 지은 묘갈명이 있다. 부인 야로 송씨는 啞軒 宋遠器의 딸이다(『성산지』 4, 「인물」 및 『星山呂氏大同譜』).

5) 都世純(1574-1653)의 자는 厚哉, 호는 巖谷이다. 都勻의 증손이다. 한강 정구의 문인이며, 川谷書院 講長을 역임하였다. 문집으로 『巖谷遺稿』가 있다. 임진왜란 시기 겪은 일을 적어 『용사일기』를 남길 정도로 기록에 능하였다. 김우옹의 제자이기도 하

하자 이들은 博聞強記하였던 李道長(1603-1644)에게 부탁하였다. 이도장이 이 일을 맡아 진행하다가 조정에 나아가게 되자 그동안 집필하였던 원고는 상자 속에 방치되었다. 이도장의 아들 이원정⁶⁾은 정계에서 물러나 고향에 내려와 있을 즈음인 1668년 무렵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편찬을 시작하여 대략의 형태를 완성한 다음, 1677년 『京山志』를 간행하였다.⁷⁾

『경산지』는 이후 성주 지역에서 사찬 읍지를 편찬할 때마다 체재와 내용의 근간을 이루었으며, 관부의 명령에 의해 편찬된 관찬 읍지에서도 대략적인 내용은 『경산지』의 것에서 출발하고 있다.

성주에 대한 현존하는 조선시대 지리지를 중심으로 각 읍지의 편찬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편찬의 추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다(『성산지』 4, 「인물」 및 『동강읍문록』).

6) 李元禎(1622-1680)의 자는 士徵, 호는 歸巖, 시호는 文翼이다. 본관은 廣州 이다. 아버지는 李道長이며, 어머니는 金時讓의 딸이다. 學稼齋 李糸宙(1599-1669)의 문인이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장살당하였다. 유문을 모은 『歸巖集』이 남아 있다(이원정의 인적·학적 연계망에 대해서는 박인호, 『영남 남인의 정치 중심 돌발, 칠곡 귀암 이원정 중가』, 예문서원, 2015, 38-53쪽 참조).

7) 이원정, 『경산지』, 「경산지서」. “曾於崇禎乙亥年中 旅軒張先生 以爲士林府庫之邦 不可使文獻無徵 屬鄉老金正郎轄呂士人燦 使志之 蓋是州於張先生爲外鄉也 二老者 退與都公世純 略記西南二面舊聞 而自謂聞說見淺 不足副軒老之托 乃貽書吾先君而請之 是時先君年甚少 特以多聞強記 見推於鄉黨 鄉黨鄭重之請 有未可以孤焉 則於是乎 哀集而錄之 書未半就 而被召還朝 亂稟蠹簡 委諸篋笥者數十年所矣 迨顯廟戊申 元禎見擯 於時退而家食 時乳海東史傳及諸家子集 旁搜廣索 及復參訂 仍將先君遺草 足而成之 (中略) 上之三年丁巳四月上 澗鄉人嘉義大夫行司諫院大司諫李元禎序”

<표 1> 조선시대 성주 관련 지지의 편찬

순번	편찬연대	편찬자	책명	구분	특기사항
1	1425년	금유, 김빈	성주(『경상도지리지』 소수)		아세아문화사 외 영인
2	1454년		성주(『세종실록지리지』 소수)		아세아문화사 외 영인
3	1469년	이맹현 외	성주(『경상도속찬지리지』 소수)		아세아문화사 외 영인
4	1531년	이행 외	성주(『신증동국여지승람』 소수)	관찬전국지	아세아문화사 외 영인
5	1668-1677년	이원정	경산지초본	사찬읍지	개인소장(성주문원, 성주문화원 영인 수록)
6	1677년	이원정	경산지	사찬읍지	목판본 간행(장서각 등) 필사본(천리대, 국학진흥원, 부산대, 계명대 등) 활자본(성주문화원 간행) 성주문화원 번역본 간행 ⁸⁾
7	1656년 초고 완성	유형원	성주(『동국여지』 소수)	사찬전국지	규장각 아세아문화사 영인
8	1759년		성주(『여지도서』 소수)	관찬읍지, 관찬전국지	교회사연구소 국사편찬위원회 영인
9	1832년	최주하	경산지증보		개인소장
10	1832년		성주읍지(『경상도읍지』 규장각 666)	관찬읍지	규장각 경상도 1, 아세아문화사 영인, 성주문화원 영인
11	1832년		성주목읍지	사찬(관찬읍지)	국립중앙도서관, 영남대학교 등
12	1864년	김정호	성주(『대동지지』 소수)	사찬전국지	규장각 등 아세아문화사 영인
13	19세기 후반	도한기	읍지잡기	사찬읍지	연세대 성주문화원 번역본 간행 ⁹⁾

8) 이상필 역주, 『역주 경산지』, 성주문화원, 2000.

9) 강희대 국역, 『국역 성주 읍지잡기』, 성주문화원, 2012.

14	1893년	오형묵	성주(『여재촬요』 소수)	사찬전국지	장서각
15	1895년		성주읍지(『영남읍지』 규장각 12174)	관찬읍지	경상도 2, 아세아문화사 영인
16	1899년		성주군읍지	관찬읍지	규장각(1책)
17	1931년	최석봉 원저, 박영기 보유	성주(『영지요선』 소수)	사찬전국지	한국인문과학원 영인
18	1931년	조경하	성주지	사찬근대읍지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 등
19	1937년	이순흠 증보	성산지(1937, 1938)	사찬근대읍지	국립중앙도서관, 계명대, 동국대 경주, 성균관대, 영남대 등 한국인문과학원, 성주문화원 영인, 성주문화원 번역본 간행 ¹⁰⁾
20	1937년	이병연	성주(『조선환여승람』 소수)	사찬전국지	한국인문과학원 영인, 성주문화원 번역본 간행 ¹¹⁾
21	1937년	정원호	성주(『교남지』 소수)	사찬전국지	오성사 외 영인
22	1961년	전호봉	성주대관	사찬현대읍지	

성주 지역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김부식이 편찬한 『삼국사기』의 星山郡 항목에 처음으로 나타난다.¹²⁾ 조선 전기에는 관부에 의해 활발하게 지리지의 편찬되면서 성주 관련 각종 기록이 지리지에 남아 있다.¹³⁾ 그 가

10) 이세동·정병호, 『국역 성산지』, 성주문화원, 2010.

11) 이수천, 『국역 조선환여승람』, 성주문화원, 2002.

12) 『삼국사기』 권 34, 「지리지」.

13) 『경상도지리지』, 『세종실록지리지』, 『경상도속찬지리지』 등 지리지 외에 기전체 사서인 『고려사』에도 「지리지」가 설정되어 간략하게 성주를 소개하고 있다.

운데 조선 전기 지역 자료를 집대성한 『동국여지승람』에서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의 일관된 체제에 의해 그 동안 조사된 지역 자료가 종합적으로 정리되었다.¹⁴⁾ 게다가 이전 지리서에는 수록되지 않았던 유적과 관련된 시문이 다양하게 기술되어 있다(순번 4).

성주에서는 17세기에 들어와 경상도 다른 지역에서의 사찬 읍지 편찬 경향과 맞물려¹⁵⁾ 읍지의 편찬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김주, 여찬, 도세순이나 이도장에 의해 만들어진 초고 원고는 남아 있지 않다.¹⁶⁾ 그러나 이원정이 편찬한 『京山志』 초고본이 현재 남아 있다(순번 5).¹⁷⁾ 이 책은 책의 완성도, 칠곡을 별기한 형식, 그리고 무엇보다 수록 내용으로 보아 이원정이 만든 초고본으로 추정된다. 이원정에 의해 편찬된 『京山志』는 1677년 목판본으로 간행되었으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파판을 거치면서 목판 간행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것은 많지 않다(순번 6).¹⁸⁾ 그러나 필사본은 여러 도서관에 남아 있으며, 1997년 성주문화원에서 신활자본으로 간행하였다.

조선 중기 이후 지역 사정은 사찬이나 관부의 전국 지리지에 수록되어 변화된 현실에 따라 내용과 체제가 정밀하게 갖추어졌다(순번 7, 8). 조선후기에는 지역에서 읍지를 만들어 올리도록 명령이 내려와 관부가 중

14) 『신증동국여지승람』 28, 「慶尙道」, 星州牧. 항목은 전국지의 체제에 따라 境界道里, 建置沿革, 官員, 郡名, 姓氏, 風俗, 形勝, 山川, 土產, 城郭, 烽燧, 宮室, 樓亭, 學校, 驛院, 倉庫, 佛宇, 祠廟, 古蹟, 名宦, 人物, 寓居, 孝子, 烈女, 題詠의 순서에 따라 기술하고 있다.

15) 최윤진, 「16,17세기에 편찬된 경상도의 사찬 읍지」, 『전북사학』 17, 1994, 19-52쪽.

16) 『성산지』의 기록에 의하면 도세순에 의한 만들어진 초고는 『경산본지』라고 불렀다(『성산지』 4, 「인물」, 도세순).

17) 『京山志草稿本』, 경북유형문화재 제365호. 1책, 표지에는 '京山志 本草'가 목서되어 있다. 19.0cm × 23.2cm. 경북 성주군 도일회 소장. 『星州文苑』, 성주문화원, 2007에 영인되어 있다. 일부 순서가 착종되어 이용에 주의를 요한다.

18) 목판본 『京山志』는 6권 2책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등에 소장되어 있다.

심이 되어 읍지를 편찬하여 上送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임진년 성주 향내 유림들이 기존의 『경산지』를 증보하여 읍지를 편찬하였다고 전한다.¹⁹⁾ 여기서의 임진년은 1832년으로 이 때 읍지 편찬의 조령에 따라 지역에서 읍지를 편찬하여 상송하였다. 이 때 성주 읍지는 都宇權²⁰⁾과 崔柱河²¹⁾ 등이 편찬한 것으로 전한다. 중앙에 올린 읍지는 다른 읍지와 함께 편집되어 규장각의 『경상도읍지』에 편집 수록되었다.²²⁾ 성주목은 4책에 수록되어 있다(순번 10). 그런데 이 책과 같은 시기에 나온 것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성주목읍지』가 있으며(순번 11), 국편에 수집된 『경산지』 제명의 필사본이 있다(순번 9). 국립중앙도서관본 『성주목읍지』는 규장각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어 후대에 필사된 것으로 추정된다. 국편 수집본 『경산지』 필사본은 『경산지』 제명을 사용하고 있으나, 필사된 내용으로 보아 1832년 지역에서 편집된 관찬 읍지의 초고이거나 초고를 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19세기 중, 후반에는 국가적 편찬사업에 비견될 수 있는 수준에 달한 사적으로 편찬한 전국지리지가 나오면서 개별 군현으로 성주에 대한 항목이 기록되었으나, 각 읍의 연혁에 대한 부분의 내용 수준은 이전의 전국 지리지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였다(순번 12, 14).

19) 『성산지』, 「성산지발문(이기철)」. “右吾州之第三誌也 其曰京山者 誌之所由始 乃文翼公李先生之撰集也 其曰壬辰本者 亦出于鄉父老之手 而增補京山者也 亦百許年 未遑劖劓 寔吾州之所慨 然往歲戊辰趙侯鏡夏 與鄉內章甫謀刊行 而未偕焉 越九年丁丑 始克成編於壬辰本 又有所增補云爾 昭和丁丑仲秋下澣 星山李基澈謹識”

20) 都宇權의 자는 稱中, 호는 默癡, 행정 都衡의 후손이다(『성산지』 4, 「인물」 및 『성주대관』).

21) 崔柱河는 호가 蒙窩이다. 재기가 탁월한 것으로 저명하다. 죽헌 崔恒慶의 후손이다(『성산지』 4, 「인물」).

22) 『경상도읍지』 1, 아세아문화사, 1982년 영인. 『경상도읍지』의 성주 해당 부분을 뽑아서 성주문화원에서 『성주목읍지』 제하에 1996년 영인하였다.

19세기 후반 都漢基는 기존의 사찬 읍지의 편찬 전통을 이어 『邑誌雜記』를 편찬하였다. 이 책은 항목 설정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서술 내용이나 체재에서 기존의 사찬 읍지와는 다른 형태를 취하면서 19세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순번 13). 이 책은 사족이 편찬을 주도하였던 이전의 사찬읍지와는 달리 향리 출신의 인물이 주도함으로써 내용이나 구성이 신흥 부농층의 이익과 동향을 반영하고 있다.²³⁾

이후에도 고종대 여러 차례 국가의 朝令에 의해 지역 읍지가 편찬되어 전국 지리지 속에 수록되었으나, 조령에 의해 기본 체재가 정해져 내려왔기 때문에 내용에서 1832년의 읍지 수준을 크게 뛰어넘지는 못하였다(순번 15, 16).

20세기에 들어와 성주 군수 趙鏡夏가 1928년 향내의 유생들과 함께 읍지 편찬을 시도하였으나 완간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일부 내용이 『星州誌』 제하에 1931년 성주 蓮桂堂에서 석판본으로 간행되었다(순번 18). 이때 향내의 유생 가운데 연계당 도청으로 裴定坤(1874-?)이 재임하고 있었는데, 그는 조경하를 도와서 향지 편찬을 주도하였다.²⁴⁾ 다만 목록에는 권8까지 있으나 실제 이 책은 권1과 권2의 1책 간행에 그쳤다.²⁵⁾ 내용과 편목은 『경산지』를 기본으로 하고 임진년 간행된 읍지로 보충하였으며, 근세의 일들을 보충하여 편찬하였다.²⁶⁾

1937년에는 기존의 1931년 간행된 권1-권2의 『성주지』에 미완성으로

23) 이윤갑, 「읍지잡기의 사회경제론 연구」, 『대구사학』 36, 1989, 28쪽.

24) 裴定坤의 자는 仁汝, 호는 小軒, 본관은 星州다. 裴柄善의 아들이며, 郭鍾錫의 문인이다. 성주읍 금산리에서 살았다(『성주대관』 3, 「인물」, 배정곤).

25) 『성주지』, 소화 6년, 발행겸인쇄자, 조경하, 인쇄소 제일선사, 발행소 성주연계당. 2권 1책으로 1930년 조경하가 쓴 서문이 있다.

26) 『성주지』, 「법례」. “一 編纂以京山誌爲本 補以壬辰誌爲草本 續以近世事蹟事” “一 篇目依京山誌與壬辰誌 從時宜參互整頓事”

남겨두었던 권3 이하의 인물에 대한 부분이 보충되어 『星山誌』 6권이 간행되었다(순번 19).²⁷⁾ 이 일은 李舜欽(1872-1945)²⁸⁾ 등이 주관하였다. 1931년에 완본이 간행되지 못하고 1937년에 완본이 간행된 것은 인물 항목의 인물 선정에 의견이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성주지』와 『성산지』의 범례 7개 조 가운데 5개 조가 인물에 대한 규정을 내세울 정도로 인물 수록에 대한 기준이 중요하였다.²⁹⁾ 권3-권4의 인물 관련 조항을 보면 권4 이사룡까지의 고려, 조선의 인물은 일부 인물의 출입을 제외하고 대체로 『경산지』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러나 인물 항목에서 권4의 송광정 이하 이원조까지 새로 추가되었다.

또한 『경산지』에서 孝子, 烈女, 婦行, 寓居로 구분되었던 항목이 『성산지』에서는 遺逸, 儒望, 學行, 名望, 文科, 武科, 生進, 蔭仕, 官職, 忠, 孝子, 烈女, 婦行, 寓居의 다양한 항목으로 나뉘어졌다. 이러한 세분된 항목의 구성은 인물을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 기술함으로써 인물 조항 추가에 따른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영지요선』, 『교남지』 등 근대시기에 편찬된 각종 전국지 속에 성주 부분이 수록되어 있다(순번 17, 21). 이병연은 전국의 군현별로 『조선환여승람』 제하에 읍지를 간행하면서 성주 부분도 간행하였다(순번 20). 그러나 근대시기에 편찬된 전국지와 읍지류는 대체로 이전의 읍지에 수록

27) 저작검발행차는 충남 대덕군의 李源祖, 인쇄검발행소는 대전의 以文社이다.

28) 李舜欽의 호는 學山, 본관은 固城이다. 李佑의 후손이다. 성주의 향교장을 역임하였다. 금수면 적산마을에서 살았다(『성주대관』 3, 「인물」, 이순흥).

29) 『성산지』, 「범례」. “一 人物篇 京山誌依舊悉錄 壬辰誌所錄參考編入事 一 新增人物篇 以有諡入享及位高望重者編入事 一 科宦 以有榜目實蹟及曾經實啣者 忠勳孝烈 以蒙旌表有信蹟者入錄事 一 右人物諸條 雖有該當之實蹟 現今生存 則不錄 以資後日事 一 舊日星州境界內生居者 今雖屬他郡 皆許入錄 以存同鄉之誼事”

된 내용을 간략히 전하면서 당대 시기의 것을 보충하는 것에 머물러 있다.

1961년 全壕峰이 전통적인 읍지의 체재를 유지하면서도 국한문으로 당대의 내용을 보충하여 『星州大觀』을 편집하였다. 이 책은 경북의 사적을 소개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된 것으로, 교체통신사에서 간행하였다.³⁰⁾ 지역 인물로는 李基元, 朴璟洪 등이 협조하였다.³¹⁾

성주에 대한 읍지의 편찬에서 보이듯이 이원정의 『경산지』는 이후 성주에서 편찬된 각종 읍지의 선구가 되었다. 특히 『성주지』 및 『성산지』의 인물 항목 초기 부분의 내용은 거의 대부분 『경산지』의 것을 그대로 수록하고 있어 『경산지』가 후일 편찬된 읍지에 미친 영향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원정은 『경산지』의 권두에 서문을 두어 읍지 편찬에 관련된 문제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이원정은 서문에서 정구가 강릉, 안동, 함안, 창녕, 화순 등지의 수령을 역임하면서 각 지역의 읍지를 편찬하였으나 고향인 성주만 읍지를 편찬하지 못하였는데 이는 병화를 거치면서 일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³²⁾ 각 지역에서의 활발한 사찬 읍지 편찬은 성주에서의 읍지 편찬에 동기를 부여하였다.

그런데 사찬읍지의 편찬은 지역에서의 인물 현양과 권징을 위한 목적이 무엇보다 컸다. 이원정은 이점에 대해서 “성주는 남쪽의 요충지로 강

30) 『성주대관』, 경북사적 4집, 교체통신사, 1961. 1996년 성주문화원에서 현대 활자본으로 재간행하였다.

31) 성주문화원 재간본 『성주대관』의 책 끝에 주기한 편집자의 내용에 따르면 초판 편찬에 참여한 사람으로 “李基元, 全壕峰, 朴璟洪, 河榮洙, 都在住, 襄且煥”을 적고 있다(『성주대관』, 1996, 성주문화원, 251쪽).

32) 『경산지』, 목판본, 「서」. “逮乎近代 東岡金先生之篤好撰述 西川鄭相公之涉獵典故 而皆未始及此 至吾文穆公寒岡鄭先生 凡所歷州府郡縣如臨瀛福州咸州昌山同福 莫不撰志 而獨於首丘之鄉則闕焉 夫吾先生之於吾州事 何所不用其力哉 意者 中經兵燹 古籍罕存 蓋有志而未就歟”

좌의 안동, 강우의 상주와 더불어 우열을 다투는 곳인데도 『동국여지승람』에 잘 나타나지 않는다. 선배의 훌륭한 말과 행실을 일컫는 사람이 없게 되면 어떻게 포폄과 권징을 할 수 있겠는가³³⁾고 아쉬워하고 있다. 이원정은 『경산지』의 기술을 통해 풍속을 도탐게 하고 빠르게 하려는데 그 목표를 두었다.³⁴⁾ 그런데 이 시기 사찬읍지의 편찬 사업은 대체로 마을 향인들의 청원과 수령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 이 점은 『경산지』도 마찬가지였다. 성주 읍지의 편찬에 대한 지역의 여망을 이원정은 “우리 고을 모든 사람들이 공통으로 갖는 한스러움”이라고 적고 있다.³⁵⁾

그런데 여기서 이원정이 『경산지』를 편찬하던 시기의 개인적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³⁶⁾ 1650년 柳稷 등 경상도 유생들이 율곡 이이와 우계 성혼의 문묘 종사를 반대하는 상소를 올렸다가³⁷⁾ 유적이 儒罰을 받게

33) 『경산지』, 목판본, 「서」. “邑於仰山之東 而據南服樞轄之會 羅麗以還 凡歷數千載 縣而爲郡 郡而爲府 府而爲牧 保有境土 而不失聽治之所者 星州是已 控引岡巒之體勢 縈迴伊洛之襟帶 人鐘亭毓之氣 邦賴榮懷之慶 光前烈而垂后昆者 指不暇屈 與江左之花山 江右之商顏 相季孟於一道 然其見於勝覽者 殆十之不能二三 證定玆捨 亦不可謂全無錯謬 而顧此一書之外 更無惇史之可以考信者 故纔過數十年 耳目所不及 則賢愚貴賤爛熳同歸 前言往行湮滅無稱 其何以寄褒貶而垂勸懲哉”

34) 『귀암집』 권12, 「부록」, <家狀(李世瑗)>. “星世鄉也 舊無志 贊成公哀集未就 府君旁搜廣索 反復參證 作爲一書 名之曰京山志 蓋自升降沿革 戶口田結 以及人物姓氏 里巷古蹟 靡不瞭然 若指掌焉 居鄉尤以敦風善俗爲意”

35) 『경산지』, 목판본, 「서」. “嗚呼 事莫難於立言 言莫重於論人 論竝生一世之人 猶不可輕焉 生數百載之下 論數百載之人 不亦尤難以重乎 吾州幅員之廣 非滕薛小國之比 縫掖之倫有關閩故家之盛 評隲往事 留與後觀 亦一史氏之責 是固昔賢先正 所不能容易也 吾家秉史氏之筆 今四世矣 鄉之長少 咸以爲記事垂後真 乃家事 勛以廣其傳 顧鹵莽滅裂 懼無以稱塞 直欲藏之於家 以俟博雅者 而正之矣 旋念風燈 泡沫日化 苦忙薰消響絕 流聞漸遠 後之視今 猶今視昔 則又懼夫繼此以降愈久而愈失古事也 乃敢忘其固陋 謀所以剖劂之 不幾於僭乎”

36) 현종·숙종 초 정국 동향과 이원정의 정치적 활동은 박인호, 『영남 남인의 정치 중심 돌발, 칠곡 귀암 이원정 종가』, 예문서원, 2015, 66-93쪽 참조.

37) 『효종실록』 권3, 효종 1년 2월 을사(22일).

되자 경상도 선비들이 監試에 응하지 않고 태학생들이 捲堂을 일으켰을 때,³⁸⁾ 서인계는 이원정이 이 일을 주동한 것으로 간주하여 매우 미워하였다.³⁹⁾ 1652년 문과 급제 후 성균관의 문묘 拜謁 행사 때 서인계 齋任 李興稷이 1650년의 유소와 관련되었던 李象震의 배알을 거절하였던 일과 관련하여 상소를 올려,⁴⁰⁾ 승지와 서인계 관학 유생에 대한 효종의 처벌을 이끌어 내었다.⁴¹⁾ 이원정은 이후 서인계로부터 지속적으로 탄핵에 직면하였으며,⁴²⁾ 남인계의 과격한 대서인 상소가 있을 때마다 배후 인물로 지목되었다. 그리하여 이원정은 여러 중앙과 지방 관직을 역임하였으나 이러한 일련의 사건으로 인해 『경산지』를 편찬하였던 1668년 경까지는 상대적으로 한미한 부서나 지방관을 역임하였다.

1669년 우윤과 공조참판을 시작으로 이후 주요 관직을 역임하면서 이원정은 영남 출신 남인계의 중진이 되었으나 지속적으로 서인계 대간에 의해 탄핵 대상이 되었다. 특히 1659년의 기해예송과 1674년의 갑인예송을 거치면서 서남 대립이 극에 달하였을 때, 이원정은 예송의 영남 남인계 배후 인물로 지목받았다.⁴³⁾

남인계의 중진으로 주목 대상이었던 이원정이 지방의 읍지를 편찬하

38) 『효종실록』 권4, 효종 1년 7월 임자(1일).

39) 『귀암집』 권 12, 「附錄」, <家狀(李世瑗)>. “庚寅時輩請以成李從祀聖廟 而筵臣皆和附以無異論 欺誣天聽 嶺南多士 封章卞破 府君參其疏 於是罰疏首柳斯文樓 疏下千餘人及道內諸儒 同意見相可否者 並不赴學 時時論方峻 凡立異於從祀之論者 必以誣賢醜正目之 而府君是時知名當世 言論文翰 爲京外所推重 故時輩意府君主其事 甚忌嫉之”

40) 『효종실록』 권9, 효종 3년 11월 기사(1일).

『귀암집』 권2, 「疏」, <新恩不得謁聖後待罪疏 壬辰>.

41) 『효종실록』 권9, 효종 3년 11월 신묘(23일).

42) 『효종실록』 권9, 효종 3년 12월 계묘(5일).

43) 『숙종실록』 권3권, 숙종 1년 4월 계축(25일). “威行一道 遠近疏章 多其指嚇”

였고, 게다가 읍지에는 상대편으로부터 공격받을 수 있는 구절이 포함되어 있어, 『경산지』는 정치적 논란과 處決의 대상이 되었다.

2) 『경산지』의 체재와 내용

이원정이 편찬한 1책의 『경산지』 초고본은 중간에 수정하면서 많은 附表를 달아 놓았다. 구성은 境界道里에서부터 建置沿革, 官員, 郡名, 姓氏, 風俗, 形勝, 土産, 藪澤, 各里, 城郭, 宮室, 樓亭, 學校, 祠廟, 驛院, 倉庫, 佛宇, 古跡, 名宦, 人物, 叢談, 婦行, 旌閭, 孝子, 題詠, 田結의 순서로 기재되어 있다. 내용 중에는 柒谷 부분을 별도로 적고 있다. 이원정이 이 초고본을 작성하였던 시기는 현종대로 보인다.⁴⁴⁾ 현재 남아 있는 『경산지』 초고본은 목판본을 만들기 위해 정서본을 만들기 직전의 것이다. 책의 중간에 부지가 다량으로 붙어 있는데 이것은 후일 목판본에 반영되어 수정되었다. 인물 부분에서는 수록 순서에 대한 주기가 있는데 역시 목판본에서 이에 따라 수정되었다.

1677년 이원정의 서문이 수록된 목판본 『경산지』의 내용 구성은 2책으로 되어 있다.⁴⁵⁾ 1책은 1권에 境界道里, 建置沿革, 郡名, 姓氏, 風俗, 形勝, 山川, 土産, 藪澤, 各坊, 戶口, 田結, 貢賦, 軍額을, 2권에 城郭, 宮室, 樓亭, 學校, 祠廟, 驛院, 倉庫, 佛宇를, 3권에 古跡, 叢談, 塚墓, 題詠, 名宦을, 그리고 2책은 4권-5권에 人物을, 6권에 孝子, 烈女, 婦行, 寓居 등을 배치하였다. 필사본과 거의 동일한 순서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초고본과 비교하면 호구, 공부, 군역 등 지역의 재정과 군사적 상황에

44) 초고본에서 今上(「藪澤」, <泉藪>; 「宮室」, <郎廳房>; 「學校」, <梅湖書院>)은 현종을 지칭한다.

45) 서문은 문집에도 수록되어 있다(『귀암집』 권6, 「序」, <京山志序 丁巳>).

대한 수치 자료가 보충되어 있으며, 초고본의 각리조에서 각 동리와 관련된 인물에 대한 내용이 대폭 보충되어 목판본의 각방조로 재편되었다. 인물에 대한 내용에서는 항목과 수록 내용에서 보충이 있었다. 초고본에서 인물과 관련하여 人物, 婦行, 旌閭, 孝子 등의 항목이 있었으나, 목판본에서는 人物, 孝子, 烈女, 婦行, 寓居 등으로 항목을 조정하거나 추가하였다. 초고본 인물 기사에는 각 인물 위에 순서를 적은 주기가 있다. 이 주기에 따라 목판본에서는 인물의 수록 순서가 교정되기도 하고, 여타 다른 항목으로 옮겨 수록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경산지』의 이러한 항목 구성은 관찬 지리서인 『동국여지승람』의 체제에서 출발하고 있다. 한편 책의 서문에서 언급하였듯이 정구가 편찬한 초기 사찬 읍지류의 체제를 따르고 있다.⁴⁶⁾ 이 점은 『경산지』의 체제를 현재 정구의 지리지 가운데 유일하게 남아 있는 『함주지』와 비교하면 그 유사성을 볼 수 있다.⁴⁷⁾ 따라서 『경산지』는 관찬의 전국지리지에서 출발하여, 당시 활발하게 편찬된 사찬 읍지의 항목을 취하여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산지』의 체제는 후대에 편찬된 『성주지』와 『성산지』 항목

46) 1587년 편찬된 『함주지』는 체제와 항목에서 16세기 이후 편찬된 사찬 읍지의 단서를 열었다(김경수, 「정구의 함주지 연구」, 『민족문화의 계문제』, 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4, 589-601쪽). 그런데 17세기 초에 편찬된 경상도의 사찬읍지에서는 『상산지』, 『일선지』, 『옥산지』에서 보이듯이 대주제와 소주제를 구분하여 항목을 설정하거나 혹은 제영이나 부록에서 시문뿐만 아니라 기문, 비명 등의 다양한 작품이 수록되는 새로운 양상이 나타난다(박인호, 「인동읍지 옥산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장서각』 22, 2009, 63-66쪽).

47) 1587년 편찬된 『함주지』의 필사본과 목판본이 조금 차이가 있으나 여기서는 목판본의 순서에 따랐다. 함주지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京師相距, 四隣疆界, 建置沿革, 郡名, 形勝, 風俗, 各里, 戶口田結, 山川土產, 館宇城郭, 壇廟, 學校, 書院, 驛院, 軍器, 烽燧, 堤堰, 灌溉, 亭榭, 橋梁, 佛宇, 古跡, 任官, 名宦, 姓氏, 人物, 流配, 善行, 閭行, 見行, 文科, 武科, 司馬, 塚墓, 旌表, 冊板, 題詠, 叢談, 跋.

설정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체제 면에서 이들 책의 선편을 이루고 있다.

<표 2> 성주 관련 관찬·사찬 지리서의 항목 변화

서명	소장처	편찬연대	항목
동국여지승람	규장각	1531 (신증)	(星州牧) 境界道里, 建置沿革, 官員, 郡名, 姓氏, 風俗, 形勝, 山川, 土產, 城郭, 烽燧, 宮室, 樓亭, 學校, 驛院, 倉庫, 佛宇, 祠廟, 古蹟, 名宦, 人物, 寓居, 孝子, 烈女, 題詠
경산지초고	개인소장	1668년- 1677년	境界道里, 建置沿革, 官員, 郡名, 姓氏, 風俗, 形勝, 土產, 藪澤, 各里, 城郭, 宮室, 樓亭, 學校, 祠廟, 驛院, 倉庫, 佛宇, 古跡, 名宦, 人物, 叢談, 婦行, 旌閭, 孝子, 題詠, 田結
경산지목판본	장서각	1677년	권1 : 境界道里, 建置沿革, 郡名, 姓氏, 風俗, 形勝, 山川, 土產, 藪澤, 各坊, 戶口, 田結, 貢賦, 軍額, 권2권 : 城郭, 宮室, 樓亭, 學校, 祠廟, 驛院, 倉庫, 佛宇, 권3 : 古跡, 叢談, 塚墓, 題詠, 名宦, 권4-권5 : 人物, 권6 : 孝子, 烈女, 婦行, 寓居
성주읍지	규장각	1832년	(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姓氏, 山川, 風俗, 坊里, 戶口, 田賦, 軍額, 城池, 林藪, 倉庫, 軍器, 關防, 鎮堡, 烽燧, 學校, 壇廟, 陵墓, 佛宇, 宮室, 公廡, 樓亭, 道路, 橋梁, 島嶼, 堤堰, 場市, 驛院, 牧場, 形勝, 古蹟, 土產, 進貢, 俸廩, 宦蹟, 科擧, 人物, 題詠, 碑版, 冊版
성주목읍지	국립중앙도서관	1832년	(地圖), 建置沿革, 郡名, 官職, 姓氏, 山川, 風俗, 坊里, 戶口, 田賦, 軍額, 城池, 倉庫, 關防, 烽燧, 學校, 壇廟, 陵墓, 寺刹, 公廡, 樓臺, 道路, 橋梁, 島嶼, 堤堰, 場市, 驛院, 形勝, 古蹟, 土產, 進貢, 俸廩, 宦蹟, 人物, 題詠
읍지잡기	연세대도서관	19세기 후반	古蹟, 公廡, 倉庫, 禿用鎮, 軍兵, 還穀, 坊名, 山川, 橫梁村, 土產魚, 烽燧, 宦蹟, 物價, 戶口, 田結, 衣服, 交友, 農利
성주지	국립중앙도서관	1931년	권1 : (地圖), 境界道里, 建置沿革(附 郡名, 官員), 姓氏, 風俗, 山川(附 林藪, 池澤, 橋梁, 防禦), 土產, 面洞(附 市場), 戶口(附 軍額), 土地(附 山林, 課稅, 產額), 城郭, 公廡(附 倉庫), 樓亭, 驛院, 校院(附 書堂), 祠廟, 寺刹, 冢墓(附 古墳), 碑銘, 권2 : 古蹟, 叢談, 題詠, 官案, [권3 : 人物, 권4 : 人物, 권5 : 人物, 권6 : 人物(附 文學, 篤行), 권7 : 文科, 武科, 生進, 蔭仕(附 官職), 권8 : 忠, 孝, 烈(附 婦行), 寓居].
성산지	국립중앙도서관	1937년	권1 : (地圖), 境界道里, 建置沿革(附 郡名, 官員), 姓氏, 風俗, 山川(附 林藪, 池澤, 橋梁, 防禦), 土產, 面洞(附 市場), 戶口(附 軍額), 土地(附 山林, 課稅, 產額), 城郭, 公廡(附 倉庫), 樓亭, 驛院, 校院(附 書堂), 祠廟, 寺刹, 冢墓(附 古墳), 碑銘, 권2 : 古蹟, 叢談, 題詠, 官案, 권3 : 人物, 권4 : 人物(附 遺逸), 儒望, 권5 : 學行, 名望, 권6 : 文科, 武科, 生進, 蔭仕, 官職, 忠, 孝子, 烈女, 婦行, 寓居.

체제 면에서 『경산지』의 특징적인 면모를 살펴보면 첫째, 『경산지』에는 칠곡을 부기하고 있는데, 이는 1640년(인조 18) 가산에 산성을 쌓고서 칠곡이 독립 군현으로 떨어져 나갔으나 여전히 한 지역으로서의 동질성이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칠곡을 별도로 제외하지 않고 여전히 성주의 읍지인 『경산지』에 항목별로 별도 기재하고 있다.⁴⁸⁾

둘째, 각방조에서는 각 방리의 형세와 촌락의 위치, 官門과의 거리, 해당 지역의 유적과 인물을 기술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의 인물과 관련하여 성씨와 가문의 이동, 선대 조상, 후대 자손, 이거 상황 등을 기술함으로써 동리와 관련된 인물 출입을 알 수 있도록 하였다.⁴⁹⁾

셋째, 총담조에서는 지방의 전설·민속·민담 등을 수록함으로써 오늘날 성주 지역의 민속을 이해하는 기본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넷째, 인물조에서는 본관이 아니라 실제 그 지역에서 살았던 인물을 중심으로 적고자 하였다.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인물을 본관별로 적었는데, 16세기 지역별로 사찬 읍지가 편찬되기 시작하면서 대부분의 사찬 읍지에서는 거주지별로 출신 인물을 적기 시작하였다. 17세기 중반에 편찬된 유형원의 『동국여지』에서 사찬 전국지를 편찬하면서 거주지별로 인물을 기재하려고 한 것도 이러한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⁵⁰⁾

48) 『경산지』, 목판본, 「서」. “八莒故縣 漆谷新府 今之士民 皆舊日同州之人也 茲不分而二之 庶使後人永固鄉井之義 斯非厚風歟”

49) 16-17세기의 사찬 읍지는 각 방리별로 주요 인물의 가문적 배경과 이력을 기술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박인호, 「김천 읍지 금릉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한국사학사학보』 30, 2014, 157쪽).

50) 『동국여지』, 「법례」. “就見勝覽所載人物 專據姓貫 故雖平生足跡 不曾到此境者 苟系土姓 則錄之 雖生於斯長於斯者 不系姓貫 則不錄焉 若是則直考之人家姓譜 足矣 何事乎志哉 今夫志者 志其實也 遺其實而不之記 則不可以爲志 故生是邦者 雖非土姓 詳其行 居他鄉者 雖系姓貫 舉其概或附於其祖先之傳 此與勝覽有異 觀者恕之”

한편 내용 면에서 특징을 살펴본다면 『경산지』는 지역에 관련된 것을 빠짐없이 모두 기록한다는 원칙에서 기술하고 있다. 이 점은 이원정이 쓴 서문에 “읍의 승강 연혁, 호구, 전결에서부터 인물과 성씨 그리고 마을의 고적에 이르기까지 수록하지 않은 것이 없다. 시골의 노파와 비천한 자에 이르기까지 효열에 관계된 자가 있으면 작은 일이라도 빠뜨리지 않았다. 길거리나 마을에서 전하는 말 가운데 전하여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잡설이라도 버리지 않았다. 비록 국가의 기록이라도 하더라도 진실로 잘못이 있다면 이를 밝혔으며, 보첩에 기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근거가 없으면 수록하지 않았다. 기록하고 삭제함에 있어서 힘써 극히 정밀한데 이르렀다. 추구한 바가 비록 감히 옛 사람과 비슷하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 마을의 역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할 수 없을 것이다”⁵¹⁾는 언사를 통해 충분히 그 의도를 볼 수 있다.

그리고 읍지는 대체로 지역 자료를 집산하는 것이지만 『경산지』에서는 안설로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고 있다. 읍지에서 안설을 적는 것은 이전의 관찬 전국지와는 다른 특징으로, 16-17세기 사찬 읍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경산지』 목판본에서는 안설의 표제로 고증적 평론이 9편 수록되어 있다.⁵²⁾

안설에서는 『삼국유사』, 『여지승람』, 족보, 『고려사』, 『동국통감』, 『국조보감』 등의 자료에 보이는 의문점을 다른 책과 비교하여 검증하고 있다.

51) 『경산지』, 목판본, 「서」. “蓋自升降沿革戶口田結以及人物姓氏里巷古跡 靡不收錄 至於村婆賤隸行有關於孝烈者 不以微而有遺 街談里語事 可傳於聽聞者 不以俚而或捐 雖國乘所記 苟有誤則辨之 若譜牒所錄 無考據則去之 一筆一削 務臻其精 其於述者之事 雖不敢妄謂有所彷彿焉者 未必不為吾鄉稽古之一助也”

52) 『경산지』에 按의 표식은 있으나 이전 자료를 단순 인용한 것으로 3편 더 있다.

내용은 기존 자료나 전문의 오류를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표 3> 『경산지』 목판본 내의 이원정 안설

출처	내용	요약
1 建置沿革	愚按三國遺事輿地勝覽 皆以星州爲六伽倻之一 而其國號 或稱碧珍伽倻 或稱星山伽倻 蓋一國二名也	벽진가야, 성산가야는 같은 곳의 이름임
2 人物 (李長庚)	按輿地勝覽及族譜 皆以長庚爲五子登科 而李穡撰·李仁復墓誌 則云長庚有子四人 因歷舉李兆年四昆弟之名 兆年仁復祖孫之卒 不過三十一年之先後 而穡與仁復同時 則其爲四子無疑 蓋勝覽作於後世 故憑流聞而有此誤也 或云億年乃其孳子云 就以算數推之 億者萬之下兆之上 而李氏族譜 億年錄於兆年之下 孳子之說信矣	이장경의 오자 문과 설에 오류가 있음.
3 人物 (李千年)	按輿地勝覽 以千年爲政丞 蓋以死後之贈 錯認爲生時履歷也	이천년의 정승은 추증임
4 人物 (李延慶)	麗史以延慶爲兆年之弟 而李仁復墓誌 兆年兄弟凡四人 兆年爲季 則其無弟 明矣 李承慶於兆年爲姪 而延慶又以慶爲名 疑亦兆年之姪 而誤稱弟耶 未可曉	이연경은 이조년의 조카일 가능성이 큼
5 人物 (宋天逢)	按李穡詠宋相國詩及贈其孫宋子郊序 俱說龍頭會之契分 蓋登魁科之人 而本州無文獻可徵 相國之名 泯泯無傳 就考麗史禮志 則忠肅王庚午壯元宋天逢 與穡同時 而先進繼見 李崇仁次李穡韻上 宋簽書詩有曰 庚午科中獨步行 合而觀之 始知李穡所稱京山宋相國者 卽天逢 而勝覽專據姓貫錄於金海人物 麗史亦從姓貫稱金海人 故後人不知天逢之爲星人也	이색의 시에 보이는 경산 송상국은 송천봉임
6 人物 (李承慶)	按東國通鑑恭愍八年十一月 紅頭賊魁僞平章毛居敬衆號四萬 冰渡鴨綠江 連陷州郡 承慶爲大將禦之 賊平錄元勳 又按李穡鄭世雲畫像贊序 歷敘近代功烈有曰 近世金氏之侵疆也 趙沖金就礪之功大矣 己亥毛賊之犯西京也 總兵李承慶之功大矣 以此參考 則承慶當日之功 可謂赫赫 而麗史沒之殊 未可知也	홍건적 침략에 공을 세움
7 人物 (李君當)	愚按君當死之十年 卽元至正二十二年也 君當之死也 自元遣官誅之 元之於希吉 亦殺父之國也 何故棄丘墓而奔之乎 殆未可信也 麗朝官制代言則正三品 司僕副正則從四品 而李氏譜降從副正 豈以代言乃逆臣所授之職 故見削耶	이군상의 아들 희길 이 원으로 도망갔다는 말은 믿기 어려움
8 人物 (李崇仁)	按陶隱與李牧隱·鄭圃隱·李通村三賢竝生麗季 以道義文章鳴一世 其相得相與之厚 就諸賢文集而可知也 逮聖祖龍興之後 堅不事二姓之志 身死權姦 爲世所悲 而國乘類 皆得時者所撰 故麗史本傳 殆無一言之褒 觀史者不可不知也	불사이군을 실천한 이는 역사서에 남아 있지 않음
9 人物 (李稷)	按國朝寶鑑 我太宗大王慶世子視爲讓寧大君 時引入大臣以其事語之 黃喜及稷爲判書堅執不可 左徙俄謫于外凡六年	폐세자의 불가함을 주장

3. 『경산지』의 파판과 함의

1) 『경산지』의 파판

『경산지』는 목판본 간행 이후 이원정의 정치적 처지에 따라 파판의 아픔을 겪게 되었다. 1680년 경산환국으로 이원정이 杖下에 사망한지 얼마 되지 않아 1682년(숙종 8) 경상도관찰사 李秀彦은 『경산지』에서 李珥·趙憲·鄭澈 등 선정을 모욕하였다는 이유로 판본을 없애고 관련된 내용을 馳啓하면서 책을 태워 없애 본보기를 보여줄 것을 청하였다. 이에 조정에서는 목판을 이미 없었는데 굳이 태워버릴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환송시켰다.⁵³⁾

성주 지역의 읍지에 불과한 『경산지』는 경상감사의 파판과 치계로 인해 매우 정치적 이념을 지닌 불온한 책으로 간주되었으며, 이에 따라 그 처리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게 되었다.

53) 『숙종실록』 권13, 숙종 8년 8월 경진(5일). “慶尙觀察使李秀彦馳啓 付上京山誌一書有曰 (A-2)罪人元禎居星州邑 號京山 故托以地誌 作為誣書 如先正臣李珥趙憲故相臣尹斗壽鄭澈 無不廣加詆毀 (B-2)其曰趙憲與金宇顥問答之語 尤是世無所傳 而人所未聞者 誌曰宇顥與憲遇於磨天嶺 憲曰肅夫無愧心乎 宇顥正色曰公論當俟後世 何可一時成定乎 其言之誣罔 據此可知 (C-2)至於先正臣金尙憲之精忠大節 華夷共聞 今領府事宋時烈贈領議政宋浚吉道德學問 宗匠一時 而元禎乃敢以尙憲負時望 一時人以天下大老稱之宋時烈宋浚吉 倚結形勢 自負其發迹山林 擠排異議者殆盡等語 肆然加之 鉞梓私藏 欲以疑惑後人 眩亂是非 (D-2)其中有李弘字之子籀 仕至通政 今領議政許積 卽其壻也等文字 是書之成 雖在積未死前 積既陷逆伏法 則是書之不可存於今日 益明矣 臣已將板本毀去 印取一本 付籤以上 一賜睿覽 出付大臣禮官 仍付政院 燒毀於搢紳所共觀之處 使中外曉然知是非之眞 則一道陷溺之心 庶有開悟之望矣 上下其冊子於大臣 左議政閔鼎重以爲憲疏論鄭汝立不道狀 獲罪竄吉州 及汝立誅 始蒙宥還 宇顥坐與汝立相親 竄會寧 憲與宇顥相值於永興地 憲贈詩而不與相見 有遠客無羊不敢蒸之句 至今傳說 遇於磨天嶺云者 錯謬如此 無足傳信 既毀板本 何必更燒冊子 右議政金錫胄亦是其言 上可之 命還送本道” 아래 인용한 실록의 해당 부분 번역은 민주본을 바탕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 실록에서 제시된 내용은 파관을 진행한 이수언의 입장에 대해 보여주고 있다. 이수언이 지적한 가장 큰 『경산지』의 내용상 문제는 李珥·趙憲과 尹斗壽·鄭澈을 헐뜯지 않음이 없었으며, 金尙憲, 宋時烈, 宋浚吉이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을 해쳤다고 하는 말을 함부로 지어내었다는 것이다. 『경산지』의 서술 내용과 실록에서 지적한 문제의 부분을 대비하여 나열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이, 조현, 윤두수, 정철을 헐뜯었다는 부분이다. 『경산지』의 인물 항목 김우평·김우옹 조 기록과 실록의 기사를 대비하였다.

(A-1) 일찍이 상신 윤두수의 탐오함을 논한 적이 있고, 또 이이의 잘못된 일처리를 탄핵한 적이 있었다. 마침내 이 때문에 당시 미움을 받았다.⁵⁴⁾

대사간으로 옮겼을 때 허봉, 송응개, 박근원을 유배하는 것은 처벌이 과중하다고 논하여 구원하였다. 이 때문에 이이와 사이가 틀어졌다. 부제학을 역임하였으며, 전라도관찰사, 이조참판, 형조참판은 혹 나가기도 하고 나가지 않기도 하였다. 기축년 역적 정여립이 모반을 꾀하였다가 복주되었다. 당시 정승 정철이 옥사를 담당하였는데 옥사에 나온 말에 지나치게 많은 서류들을 연루시켰다. 정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거의 연좌를 피하지 못하였는데, 이에 회령으로 유배를 갔다.⁵⁵⁾

일찍이 대사헌으로 있으면서 좌의정 윤두수를 논박하였으며, 우의정 유흥은 용열하고 비루하며 이익을 좋아한다고 논하였다. 또 기축옥사에서 원통하게 죽은 선비 최영경의 억울함을 신원할 것을 청하였다. 그리고 정철이 어

54) 『경산지』 5, 목판본, 「인물」, 김우평. “嘗論相臣尹斗壽貪污 又劾李珥處事之失 終以此見忤於時”

55) 『경산지』 5, 목판본, 「인물」, 김우옹. “移大司諫 論救許筭宋應漑朴謹元 竄謫之過重 由是貳於李珥 歷副提學 全羅道觀察使 吏刑曹參判 或赴或不赴 戊子出爲安東府使 己丑逆賊鄭汝立 謀反伏誅 時相鄭澈治獄 獄辭連累多濫土類 與澈異議者殆無得免 坐謫會寧”

진 선비들을 모함하여 죽인 죄를 논하고 그 관직을 삭탈할 것을 청하였다.⁵⁶⁾

(A-2) 地誌를 핑계대면서 誣陷하는 책을 만들었는데, 先正臣인 李珥·趙憲과 故 相臣 尹斗壽·鄭澈을 헐뜯지 않음이 없었습니다.

이수언은 『경산지』의 김우평과 김우옹 조에 수록된 이이, 조헌, 윤두수, 정철 등에 대한 비판적 언급을 서인계 선현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였다.

(B-1) 김우옹이 유배를 가는 도중에 조헌과 마천령에서 만났는데 조헌이 “肅夫께서는 이런 처지에 이르게 되었는데, 혹 후회하지는 않습니까?”라고 하였다. 이에 답하기를 “公論은 마땅히 후세를 기다려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찌 한 때의 위세로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 이에 조헌이 손사래를 치면서 일어나 조정에 이 말을 전하니, 당로자들이 더욱 미워하였다.⁵⁷⁾

(B-2) 그가 수록해 놓은 소위 ‘趙憲이 金字顛과 問答하였다’는 말은 세상에 전하는 바가 없어 사람들이 듣지도 못하였던 것이므로, (誌에 적어놓기를, “김우옹이 조헌과 磨天嶺에서 만났는데, 조헌이 말하기를, ‘肅夫는 후회하지는 것이 없습니까?’ 하니, 김우옹이 정색을 하면서 말하기를, ‘公論은 마땅히 後世를 기다려보아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찌 한때의 위세로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답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이 무망함은 이를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 건은 金字顛(1540-1603)이 유배가면서 마천령에서 조헌과 만났

56) 『경산지』 5, 목판본 「인물」, 김우옹. “嘗以大司憲駁左議政尹斗壽 又論右議政俞泓 庸鄙嗜利 請伸己丑冤死人處士崔永慶之冤 追論鄭澈殺賢士之罪 削其官爵”

57) 『경산지』 5, 목판본, 「인물」, 김우옹. “與趙憲遇於磨天嶺 憲曰肅夫到此地 頭能無悔乎 正色而答曰 公論當俟後世 何可以一時之威 定是非乎 憲拂手而起 倡言于朝 當路者尤疾之”

을 때 趙憲(1544-1592)이 김우옹에게 이런 처지에 빠지게 되었는데 후회하지 않는지를 묻자, 김우옹이 한 때의 위세로 옳고 그름을 정할 수 없다고 하였다는 말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것이다. 실록에서도 민정중이 『중봉집』에서 나오는 조헌의 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실제로 조헌과 김우옹이 만난 일이 없으며, 기술 내용에 착오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 우의정 김석주도 동의하고 있다.

임금이 책자를 대신에게 내렸다. 좌의정 閔鼎重이 말하기를, “趙憲은 鄭汝立의 도리에 어긋난 실상을 상소하였다가 죄를 얻어 吉州에 유배되었는데, 정여립이 伏誅되자 비로소 사면되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金宇顛도 정여립과 서로 친하다고 연좌되어 會寧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헌이 김우옹과 永興 땅에 같이 있었으나, 조헌이 서로 만나지 못하여 詩를 지어 주었으니, ‘멀리서 온 손님에게 羊이 없어 삶아 내지 못하네’라는 구절이 있어 지금까지 그 말이 전해 옵니다. 그러므로 磨天嶺에서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잘못되었으므로 믿을 바가 못 됩니다. 이미 板本을 헐어버렸는데, 다시 책자를 불태울 것까지야 있겠습니까?”라고 하니, 우의정 金錫胄도 그 말이 옳다고 하였다. 이에 임금이 그것이 좋겠다고 여겨, 本道에 돌려보내도록 명하였다.⁵⁸⁾

조헌의 『중봉집』을 살펴보면 이건에 대해 실록 기사에서 말한 바와 같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시를 전해주었다는 내용이 있다.⁵⁹⁾ 그러나 김우옹의 『동강집』의 연보에는 실제로 만나서 조헌과 문답을 하였다는 내

58) 『숙종실록』 권13, 숙종 8年 8月 경진(5일).

59) 『중봉집』, 「附錄」 1, <연보>. “十七年己丑 先生四十六歲 初 先生之竄北也 金宇顛長玉堂有力焉 及先生之放還也 宇顛辭連逆獄 竄會寧 相值於永興 先生與書及詩而不相見 其詩有雙城邂逅崖州路 遠客無羊不得蒸之語”

용이 수록되어 있다.⁶⁰⁾ 실제로 만나서 문답을 나누었는지의 사실 여부는 알 수 없으나 이원정은 김우옹 연보의 기록을 취한 것이다.

한편 김상헌, 송시열, 송준길에 대한 평가를 함부로 진행하여 시비를 어지럽혔다는 부분이다.

(C-1) 당시 김상헌이 사람들의 중망을 받아 일시 천하의 대노라고 칭해 지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宋時烈과 宋浚吉 등과 서로 결탁하여 形勢를 이루었 으며, 산림에서 입신한 것을 자부하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을 배제하여 거의 다 해쳤다. 대부분 사람들은 화가 두려워서 속으로만 그르다고 생각할 뿐이지 감히 말로는 드러내지 못하였다. 장응일이 사간이 되자 상소문을 올려 극진히 말하였는데 다음과 같다. “산림의 높은 선비도 색목 가운데 앉아 있으며, 천하의 대로도 봉당의 한편 의견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끼리끼리 모여 앉아서 의견이 다른 이는 치고 같은 사람은 당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가가 장차 망하는 것을 염려도 하지 않고 군부가 두렵다는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전하께서 가까이 있는 신료들에 의해 가법계 여기지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에 시류를 쫓는 무리들의 분노와 원한이 뼈에 사무쳐 번갈아가면서 상소하여 쫓아내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다시는 현직에 서용되지 못하였다.⁶¹⁾

60) 『동강집』, 「부록」 권4, <연보>. “十七年己丑(先生五十歲) 十一月 謫會寧府 (時鄭汝立以逆誅 株連之禍 濫及搢紳 先生爲白惟威所構陷 亦不免 是行 仲氏開巖公自尙州馳到榮川 臨別贈詩 有唐公淮水舟何泊 韓子潮州馬不前之句 發行之日 無所乘 將未免徒行 雲川金公涌以書生在餞席 脫驂以進 路逢趙重峯憲於磨天嶺上 憲問曰 肅夫到此 能無悔乎 先生正色折之曰 公論當俟後日 安可以一時之威 正其是非乎) 十二月 到謫所 門人羅德潤李璣王金輅等從”

61) 『경산지』 5, 목판본, 「인물」, 장응일. “時金尙憲負時望 一時人至以天下大老稱之 宋時烈宋浚吉等 倚結形勢 自負其發跡山林 擠排異議者殆盡 人皆怖禍相與腹 非不敢發口 應一爲司諫 陳疏極言 有曰 山林高士 尙坐色目之中 天下大老 亦主朋比之論 紛紛蹲踏 伐異黨同 不恤國家之將亡 不知君父之可畏 惜乎 殿下之見輕於臣隣也 時輩恚恨入骨 交章斥逐 不復敝顯秩”

(C-2) 심지어 先正臣 金尙憲의 충성과 절의는 중국과 우리나라에 널리 알려졌으며, 지금 領府事 宋時烈과 贈 領議政 宋浚吉의 도덕과 학문은 한 시대에 가장 으뜸인데도, 李元禎은 감히 ‘당시 김상헌이 사람들의 중망을 받아 일시 천하의 대노라고 칭해지기까지 하였다. 그런데 宋時烈과 宋浚吉 등과 서로 결탁하여 形勢를 이루었으며, 산림에서 입신한 것을 자부하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자들을 배제하여 거의 다 해쳤다’는 등의 말을 함부로 더하였습니다. 이를 책으로 출판하여 몰래 감추어 두고서 뒷사람들을 현혹시켜 是非를 어지럽히려고 하였습니다.

이수언은 김상헌, 송시열, 송준길에 대한 장응일 항의 기술이 편파적이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장응일의 아들 장영은 이도장의 딸과 결혼하여 장응일과 이도장은 사돈 관계에 있었다. 장응일은 이원정에게는 누이 남편의 아버지였다. 장응일은 이 상소를 현종 말년인 1674년 5월에 올렸다. 이 때는 1659년 효종 사망 후 자의대비의 복상기간을 두고 다툰 기해예송에서 패배하였던 남인이 1674년 2월 효종비인 인선왕후 사망 후 복상기간을 두고 이루어진 갑인예송을 통해 본격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던 시기였다. 장응일이 올린 응지 상소의 내용은 『청천당집』에도 전하고 있다.⁶²⁾

남인은 1674년 7월 6일 도신정의 상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예송을 불러 일으켰는데, 서인들은 이 때 그 배후에 이원정이 있다고 생각하였다.⁶³⁾ 장응일의 일련의 상소도 역시 이원정이 그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62) 『聽天堂集』 권2, 「疏」 <求言應旨疏 庚寅五月司諫時>. “山林高士 尙坐色目之中 天下大老 亦主朋比之論 其他何足言哉 紛紛噂沓 伐異黨同 不恤國家之將亡 不知君父之可畏 惜乎殿下之見輕於臣鄰也 倘殿下定厥志而明是非廓乾斷 則必不如是之甚也 臣目見艱危 言觸時諱 孤危之跡 機弩必發 而螻蟻血忱 不能自抑於天地父母之下 伏願聖明恕察而加意焉 臣不勝憂愛激切之至 謹昧死以聞 答曰論予之病 實是藥石 可不體念.”

63) 『숙종실록』 권3, 숙종 1년 3월 병술(28일).
『숙종실록』 권3, 숙종 1년 4월 무술(10일).

생각하였다.⁶⁴⁾ 이원정이 『경산지』를 집필하기 시작한 것은 1668년이며 간행을 위해 서문을 쓴 것이 1677년이므로, 장응일에 대한 기술에는 이 시기 이원정이 가지고 있었던 서인계에 대한 당파의식이 충분히 혐의를 받을 만한 시기였다. 게다가 초고본에서는 인물 항목에 장응일 관련 기록이 아예 없었다가 목판본에 별도로 장응일 조가 추가되어 있으며, 특히 장응일 조의 후반에는 김상헌, 송시열, 송준길에 대한 비판적 기술이 수록되어 있다.

허적이 역모죄로 복주되었는데 여전히 『경산지』에 인물로 기록되어 있다는 비판이다.

(D-1) 소야는 고을에서 55리 떨어져 있다. 고탄촌에는 이홍기, 이홍량, 이홍우가 살았다. 여동생이 한강 정구에게 시집을 갔다. 이홍우의 아들 이서는 벼슬이 통정대부에 이르렀다. 지금 영의정 허적이 바로 그의 사위이다.⁶⁵⁾

(D-2) 또 그 가운데는 ‘李弘宇의 아들 李籓는 벼슬이 通政大夫에 이르렀으며, 지금 領議政 許積이 바로 그의 사위’라는 등의 글이 있습니다. 이 책이 완성된 것이 비록 허적이 아직 죽기 전이었지만, 허적은 이미 逆謀에 빠져 伏誅되었으므로 이 책이 오늘날 남아 있어서는 안 됨이 더욱 분명합니다. 신이 이미 板本은 헐어버렸지만 한 부를 인쇄하여 올리오니, 한 번 살펴보시고서 大臣과 禮官에게 보여 주고 또 承政院에도 보여 주어서, 조정의 관원들이 함께 보는 곳에서 불태워 없애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 中外로 하여금 환하게 옳고 그름의 진실을 알게 하신다면, 한 道가 거짓에 빠진 마음을 거의 깨우치게 될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64) 『숙종실록』 권4, 숙종 1년 7월 신묘(5일).

65) 『경산지』 1, 목판본, 「各坊」. “所也距州五十五里高吞村 李弘器弘量弘宇居之 有妹歸寒岡鄭述 弘宇之子서 仕至通政 今領議政許積卽其婿也” 이 부분은 초고본에서는 병조판서라고 하였다가 다시 우의정으로 수정하고 있다. 목판본에는 영의정으로 수정되어 있다.

허적은 이 책이 만들어져 간행된 이후인 1680년 3월 할아버지 허잠이 시호를 추증받은 것을 기념하는 잔치를 열면서 왕실의 유악(기름천막)을 무단으로 쓴 것이 알려져 권력에서 축출되고 이어 4월 서자 허건의 비리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당하였다.⁶⁶⁾ 경상감사 이수언은 당시 허적이 역모 혐의로 사형을 당하였는데 사형당한 자의 이름이 그대로 있는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필사 초고본에서는 아직 병조판서 혹은 우의정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원정이 지명에서 관련된 인물에 관련된 사항을 적은 것은 서문에서 보이듯이 고을에 관련된 인물을 착실하게 적어 두고자 하였던 의도에 기인한 것이다. 물론 허적은 1675년(숙종 1년) 형조판서에 이원정을 천거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⁶⁷⁾

한편 1682년 파관 후 후대에 편찬된 읍지 가운데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1931년(1937년) 간행된 『성산지』와 비교하여 해당 내용을 살펴보면 『성산지』에서는 A-1와 B-1의 김우평, 김우옹 관련 기사를 그대로 두되, C-1의 장응일 조 기록의 후반 일부와 D-1의 허적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있다.⁶⁸⁾

김우옹에 대한 기사와 장응일 조의 김우옹 관련 기사는 김우옹의 문집에 수록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재하면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없앨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을 보인다. 그러나 목판본 장응일 조 기사 가운데 문

66) 허적은 1795년(정조 20년) 정조의 특명으로 신원되었다.

67) 『숙종실록』 권3, 숙종 1년 2월 갑오(6일).

김학수는 이 조항에 대해 이원정이 광산이씨, 정구, 허적을 연결하려는 의도에서 기술한 것이라고 적고 있다(김학수, 「한강 정구의 학문 연원」, 『한국학논집』 48, 계명대, 2012, 134쪽 주16).

68) 『성산지』, 관련 조항 참조.

제가 되었던 후반 부분⁶⁹⁾은 이원정이 자신의 생각을 적어 놓은 부분이고 또 정치적 사안이 되었기 때문에 후대의 입장에서 이 부분을 그대로 둘 수 없는 형편이 되었다. 그러므로 뒤에 간행된 『경산지』에서 이 부분이 삭제되었다.⁷⁰⁾

허적에 관계된 기록의 경우 소야라는 지명에 소개한 것이며, 또한 허적이 정조대 신원이 되었으나 당시 허적의 행적이 영남 남인에 의해서도 비판을 받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굳이 수록할 필요가 없어 『경산지』에서는 누락되었다.

2) 정치적 함의

『경산지』의 파관이 진행된 이 시기는 당쟁이 격화되던 시기이다. 이원정은 당쟁이 격화된 숙종대 내내 남인의 배후 조종자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특히 그는 현종대 예송에서 유세철, 도신징 등의 영남 남인계 인물들이 주도한 상소의 배후 인물로 지목되었다. 서인계가 편찬한 『숙종실록』에는 아예 이원정이 도신징을 시켜 올리게 한 것으로 적고 있다.⁷¹⁾

69) 『경산지』 5, 목판본, 「인물」, 장응일. “孝廟初卽位 起廢置臺省 首請金自點元斗杓貪婪傾軋之罪 聞者縮頸 時金尙憲負時望 一時人至以天下大老稱之宋時烈宋浚吉等 倚結形勢 自負其發跡山林 擠排異議者殆盡 人皆怵禍 相與腹 非不敢發口 應一爲司諫 陳疏極言 有曰 山林高士 尙坐色目之中 天下大老 亦主朋比之論紛紛躑躅 伐異黨同 不恤國家之將亡 不知君父之可畏 惜乎 殿下之見輕於臣隣也 時輩恚恨入骨 交章斥逐 不復敍顯秩 寧陵屢有傾圮之變 因山敦事諸臣當被重譴 故前後奉審大臣 不以實聞 顯宗末 宗室靈林副令翼秀上疏言之 上大驚動遂有移窆之舉 應一在鄉 陳疏請治奉審諸臣遮護不忠之罪 時議又極怒 請竄于邊 上諒其無他意 止配中道黃澗縣 今上卽位 首被恩宥 起徙中數月 召旨連降 老病未赴”

70) 『청천당집』(권5, 「附錄」, <京山誌(李元禎)>)에는 목판본 『경산지』의 장응일 조 내용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고 있다.

71) 『숙종실록』 권3, 숙종 1년 3월 병술(28일).
『숙종실록』 권3, 숙종 1년 4월 무술(10일).

1674년 갑인예송으로 남인계는 현종의 지지 속에 정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남인계는 현종의 급서와 숙종의 즉위 이후 1680년 경신환국 이전까지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런데 당시 송시열과 송준길에 대한 처벌 상소가 올라가면 서인계는 이원정이 배후에 있었던 것으로 보았다. 뒷날 서인계가 편찬한 『숙종실록』에서는 1675년 장응일이 송시열을 비난하는 상소의 배후 인물로 이원정을 지목하고, 장응일을 이원정의 하수인으로 묘사하고 있다.⁷²⁾ 1675년 광세건이나 도신정에 대한 관직 수여에 대해서도 이원정이 이들을 부추겨 상소를 올린 것에 대한 댓가로 묘사하기까지 하였다.⁷³⁾ 이원정에 대한 서인계의 부정적 시각은 1680년 경신환국으로 정국을 장악할 때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1680년 서인계가 집권한 다음 이원정은 주된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1680년 윤8월 이원정은 역모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杖下에 사망하였다. 그런데 『경산지』는 비록 이원정이 편찬하였다 하더라도 읍지의 형태를 지니고 있으므로 내용상 공격의 대상이 될 여지가 크지 않았으나, 인물에 대한 서술에서 서인계 선현에 대한 비판적인 내용이 가미되면서 서인계의 공격을 초래하였다. 이원정이 비록 의도하였든 하지 않았든 간에 서인들은 『경산지』의 일부 구절이 자신들이 존경했던 윤두수, 송시열, 송준길, 정철 등의 선현을 모욕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파판과 국왕에게 보낸 휘철 상소로 나타났다.

파판의 장본인은 경상감사 李秀彦이었다.⁷⁴⁾ 그는 1681년(숙종 7) 경

72) 『숙종실록』 권4, 숙종 1년 7월 신묘(5일).

73) 『숙종실록』 권4, 숙종 1년 9월 무진(23일).

74) 李秀彦(1636-1697)의 자는 美叔, 호는 龔溪, 醉夢軒이며, 본관은 韓山이다. 시호는 正簡이다. 14세에 宋時烈의 문하에 들어가 수학한 서인계 인물이다. 문집으로 『농

상도관찰사가 되었다.⁷⁵⁾ 그의 관찰사 재직시는 1680년 경신환국 직후로 서인계가 중앙 권력을 장악하였던 시기였다. 김창협 등 서인계가 그를 칭송하였으며, 남인계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경상도관찰사로 임명되었다는 것은 그가 서인 강경파 가운데 한 사람이었음을 보여준다. 17-18세기는 중앙 정계의 분쟁과 마찬가지로 영남 지방에서도 향권을 두고서 남인과 서인이 크게 대립하였던 시기였다. 이 시기 영남 지역에서 서인계의 진출을 크게 원조하였던 인물이 이수언이었다.

이수언은 경상감사로 있을 때 대구와 인동 등지에서 서인 세력의 부식에 크게 노력하였다. 1672년(현종 12) 정월 송시열의 문인인 李翻(1626-1688)이 경상도관찰사로 부임하면서 대구 지역 서인계의 후견인을 자처하였다. 당시 이숙은 이전 해부터 대기근에 시달렸던 영남 지역에 목민관으로 내려와 救荒과 賑恤에 힘썼다.⁷⁶⁾ 이에 1682년(숙종 8) 대구지역의 서인계가 중심이 되어 이숙을 제향하는 생사당인 상덕사를 세웠으며, 이는 1693년 제향시설을 갖춘 사우로 발전하였다.⁷⁷⁾ 상덕사

계선생유고』가 있다.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계가 집권하자 1681년(숙종 7) 경상도관찰사가 되었다가 이듬해 9월 이임하였다(『대구읍지』, 「환적」; 김택규·박대현 편역, 『대구읍지』, 대구광역시, 1997).

75) 『숙종실록』 권11, 숙종 7년 6월 경술(29일).

76) 『대구읍지』, 「제영」, <상덕사유애비(郭世翼)>. 『운석유고』 12, 「비명」, <상덕사비음기(趙寅永)>.

77) 상덕사는 1682년 무천리에 이숙의 생사당으로 건립하였다가, 1693년 사우를 창립하고 제향하였다(禹錫圭, 『知足堂集』 권2, 「잡저」, <尙德祠事蹟>). 뒤에 俞拓基가 1778년(정조 2)에 추향되었으며(李若采, 『行休齋文集』 권2, 「축문」, <尙德祠知守齋俞先生影幀奉安時告逸休李先生文>; 禹載岳, 『仁村文集』 권2, 「祝文」, <告知守齋文>). 뒤에 다시 金羲淳과 李在秀가 추향되었다(『大邱府事例』, 「미사액서원」, 규장각 및 徐錫台, 『대구읍지』, 「원사」, <상덕사>, 1924). 처음 장소가 부의 동문 밖이라 번잡하여 부의 남쪽 連龜山 아래로 옮겼다(禹載岳, 『仁村文集』 권3, 「雜著」, <尙德祠移建事

의 扁額은 서인의 영수였던 송시열(1607-1689)이 지었다.⁷⁸⁾ 상덕사는 이후 대구지역 서인세력의 거점이 되었다.⁷⁹⁾ 상덕사의 건립에는 당시 경상감사였던 이수언의 지원과 도움이 적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된다.⁸⁰⁾

한편 인동에서는 인동 향교의 주도권을 두고 서인과 남인계 사이에서 향전이 일어났다.⁸¹⁾ 1681년(숙종 7) 인동 향교의 교임직을 두고서 향전이 일어나 서남간 크게 대립되어 있었으며, 이러한 구도 속에 인동 장씨 황상과 서인계인 張慶弘과 張瑠는 1682년(숙종 8) 사계 김장생 청원소를 위한 도회를 인동 향교에서 개최하려고 하였다. 당시 향교는 張萬紀, 金順發, 張宇翰, 張宇柱 등 남인계가 점거하고 있었다. 이에 장경홍과 그의 조카 장유는 영남의 대표적 서인 세력인 대구의 옥천 전씨 全克泰·全克念 형제, 선산의 덕수 이씨 李鼎華, 함창의 인천 채씨 蔡恒吉 등과 함께 인동 향교에서 남인계를 몰아내었다. 그러나 인동에서 향교의 주도권을 두고 향전이 지속되자 인동부사 柳晉昌의 보고에 의해 감사 李秀彦이 남인계

蹟>). 일제 강점기에 다시 현재의 남산동으로 이진하였다.

78) 『대구읍지』, 「학교」, <상덕사>.

『조두록』, 「경상도, 대구」, <상덕사>.

79) 김학수, 『17세기 영남학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8, 336쪽.

80) 생사당의 건립이 논의된 것은 1680년(『대구읍지』, <상덕사유애비(곽세익)>) 이전이었으며, 완공된 것은 1682년이었다. 주 건립 시기는 대체로 이수언의 경상도관찰사 재임시기와 겹치며 또한 후일 이수언은 이숙의 만사와 제문을 작성하고 있다(李秀彦, 『龔溪先生遺稿』 권2, <李右相翻挽>, 권3, <祭李右相翻文>). 그러므로 생사당 건립에 이수언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음은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

81) 인동 향전에 대해서는 이연숙, 「17-18세기 영남지역 노론의 동향」, 『실학사상연구』 23, 2002 ; 이재철, 「조선후기 대구지역 서인세력의 동향」, 『대구사학』 76, 2004 (『조선후기 사림의 현실인식과 정국운영론』, 집문당, 2009) ; 김학수, 「영남학파의 정치적 분화」, 『17세기 영남학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참조.

인사들을 잡아오도록 명을 내려 결국 金順發, 張宇樞가 감옥에서 죽기에 이르렀다.⁸²⁾

후일 1689년 기사환국으로 경상감사에 남인계인 李玄錫(1647-1703)이 임명되자,⁸³⁾ 이 사건이 편파적으로 처리되었다고 남인계의 후손들이 청원을 하기에 이르렀다. 이 때 張宇樞의 아들 張次翼은 경상감사 李玄錫에게 격쟁을 하면서 1680년 이원정의 歸葬 후에 致奠을 드린 자들을 감사와 서인계가 억울하게 죄를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다.⁸⁴⁾

이수언의 『경산지』 파관은 이와 같이 상덕사 건립과 향전 처리의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었다. 따라서 파관은 단순히 내용의 오류 시정 이상의 1682년 영남 지역에서의 대남인 강경책의 소산이라는 정치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4. 맺음말

『경산지』는 1668년 경 李元禎이 정계에서 물러나 고향에 내려와 있을 때 아버지 李道長의 뒤를 이어서 편찬을 시작하여 1677년 간행한 성주의 사찬 읍지이다. 항목의 구성은 한강 정구가 편찬한 초기 사찬 읍지류의 체재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았다.

1682년(숙종 8) 경상도관찰사 李秀彦은 李珥·趙憲과 尹斗壽·鄭澈 등

82) 『단구유고』 하, 「부록」, <出己巳錄略(張慶弘)> ; [『연방집』 후, 전극림, 『단구유고』].

83) 『숙종실록』 권20, 숙종 15년 3월 기사(2일).

84) 전극림, 『단구유고』, 「잡저」, <卞문>.

선정을 헐뜯고 또한 金尙憲, 宋時烈, 宋浚吉 등에 대해 함부로 말을 지어 내었다는 혐의로 『경산지』의 판목을 폐기하였다.

이 사건은 당쟁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경산지』의 편찬자인 이원정은 현종대 예송에서 영남 남인계 인물들이 주도한 상소의 배후 인물로 지목받고 있었다. 또한 격화된 숙종대 당쟁의 시기에 1680년 서인계가 집권하기 이전까지 서인측으로부터 남인계의 주론자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1680년 경신환국으로 서인계가 집권한 다음 이원정은 주된 공격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으며, 1680년 윤8월 역모에 가담하였다는 혐의로 맞아 죽었다.

그런데 『경산지』의 서술 내용에서 보이는 서인계 인물들에 대한 비판적 표현을 서인계는 의도적인 왜곡으로 간주하였으며, 이것이 파관과 국왕에게 보낸 焚毀 상소로 나타났다. 파관한 이는 1681년(숙종 7) 경상도 관찰사가 된 李秀彦이었다. 관찰사로 재직시 그는 영남 지역에서 서인계의 진출을 크게 원조하였다. 특히 그가 경상도관찰사로 재임하였던 1682년 대구에서 서인계 인물이 중심이 되어 서인계 이속을 제향하는 尙德祠가 건립되었다. 그는 또한 1681과 1682년 인동 향교 교임직을 두고서 남인계와 서인계의 향전이 일어났을 때 인동 지역 남인계 사인들을 죽음으로 몰고 갔던 인물이었다.

1682년 이수언의 『경산지』 파관은 1682년 대구의 서인 거점인 尙德祠 건립과 1681-1682년 인동 향전에서 남인계 士人의 致死 처리라는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영남 지역 대남인 강경책의 소산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경산지』의 파관을 가져온 부분은 후일 성주에서 읍지를 편찬하면서

수정과 삭제 등을 거치게 되었지만, 이러한 파관과 분혜 논의가 정치적 배경에서 나왔다는 점은 숙종대 당파를 둘러싼 사상적, 이념적 배타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후 숙종대 일어난 宋時烈 편간의 『心經附註釋疑』, 朴世堂의 『思辨錄』, 崔錫鼎의 『禮記類篇』, 俞棨의 『家禮源流』 휘관 사건도 이러한 학문과 사상의 이념화 양상의 한 모습이다.

참고문헌

『京山志草稿本』, 『京山志』, 『慶尙道邑誌』, 『歸巖集』, 『龔溪先生遺稿』, 『大丘邑誌』, 『俎豆錄』, 『東岡集』, 『東岡及門錄』, 『東國輿地志』, 『星山呂氏大同譜』, 『星山誌』, 『星州大觀』, 『星州牧邑誌』, 『星州文苑』, 『星州誌』, 『新增東國輿地勝覽』, 『聯邦集』, 『雲石遺稿』, 『邑誌雜記』, 『仁村文集』, 『朝鮮王朝實錄』, 『重峯集』, 『知足堂集』, 『聽天堂集』, 『行休齋文集』

강희대 국역, 『국역 성주 읍지잡기』, 성주문화원, 2012.

김경수, 「정구의 함주지 연구」, 『민족문화의 제문제』, 기념논총간행위원회, 1994, 581-605쪽.

김학수, 『17세기 영남학과 연구』, 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학위논문, 2008.

김학수, 「한강 정구의 학문 연원」, 『한국학논집』 48, 계명대, 2012, 127-167쪽.

박인호, 「김천 읍지 금릉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한국사학사학보』 30, 2014, 147-177쪽.

박인호, 「인동 읍지 옥산지의 편찬과 편찬정신」, 『장서각』 22, 2009, 53-80쪽.

박인호, 『영남 남인의 정치 중심 돌발, 칠곡 귀암 이원정 증가』, 예문서원, 2015.

이상필 역주, 『역주 경산지』, 성주문화원, 2000.

이세동·정병호 역, 『국역 성산지』, 성주문화원, 2010.

- 이연숙, 「17-18세기 영남지역 노론의 동향」, 『실학사상연구』 23, 2002, 81-116쪽.
- 이윤갑, 「읍지잡기의 사회경제론 연구」, 『대구사학』 36, 대구사학회, 1989, 27-57쪽.
- 이재철, 「조선후기 대구지역 서인세력의 동향」, 『대구사학』 76, 2004, 95-126쪽 ;
『조선후기 사림의 현실인식과 정국운영론』, 집문당, 2009, 247-276쪽.
- 제수천 역, 『국역 조선환여승람』, 성주문화원, 2002.
- 최윤진, 「16, 17세기에 편찬된 경상도의 사찬 읍지」, 『전북사학』 17, 1994, 19-52쪽.

Abstract

Destruction of the Seongju County Gazette, <Gyeongsanji>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Thereof

Park, In-Ho

<Gyeongsanji>, the name given to the Seongju County Gazette (*eupji*), was compiled by Yi Wonjeong. In this regard, during the 16th-17th centuries were a time in which such private compilations of county gazettes were common. However, the wooden printing blocks of <Gyeongsanji> were set afire by the Governor of Gyeongsang Province on the grounds that they were an affront to the ancient sages from the Westerners faction (*seoin*). The contents of <Gyeongsanji> also became an issue at the central government level. This study analyzes the compilation process of the <Gyeongsanji> and the characteristics of its contexts, as well as the periodic background to the destruction of the gazette and the political implications thereof.

The Seongju County Gazette (*eupji*), <Gyeongsanji>, started to be compiled by Yi Wonjeong in 1668 and was first published in 1677. However, the Governor of Gyeongsang Province Yi Sueon ordered that the woodblock printed books that made up <Gyeongsanji> be discarded in 1682 on the grounds that they slandered the beneficent rule of Yi Yi, Jo Heon, Yun Dusu and Jeong Cheol and fabricated tales about individuals such as Kim Sangheon, Song Siyeol and Song Jungil.

This incident was closely related to the factional strife that prevailed at the time. Yi Wonjeong was identified as the central figure behind the submission of the appeal by the Southerners faction (*namin*) from the Yeongnam region regarding ritual controversies during the reign of King Hyeonjong. Furthermore,

Yi was also regarded by the Westerners faction as the leader of the Southerners group before the Westerners grasped political power in 1680 following the reversal of the political situation in the year of Gyeongsin (*Gyeongsin hwanguk*).

In 1682, the Governor of Gyeongsang Province Yi Sueon proclaimed that the descriptions of these events rendered by the Westerners faction in the <Gyeongsanji> were intentional distortions of the truth. This anger led him to call for the incineration of the woodblock printed books. A disciple of Song Siyeol, Yi Sueon actively supported the Westerners faction from the Yeongnam region's efforts to enter central politics during his term as Governor of Gyeongsang Province.

Yi Sueon's destruction of <Gyeongsanji> in 1682 occurred in conjunctio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angdeoksa Shrine as a base for the Westerners in Daegu and the emergence of the political vortex related to the handling of the disgraceful deaths of members of the Southerners groups during the fight that erupted between the Southerners (*namin*) and Old Doctrine (*noron*) factions within the Indong Jang clan. This decision can as such be regarded as a direct outcome of the hardline policy that was adopted against the Southerners faction in the Yeongnam region.

The context surrounding the destruction of <Gyeongsanji> was modified and even deleted altogether in ensuing versions of gazettes compiled in Seongju. The fact that the discourse on the destruction and incineration of <Gyeongsanji> had its roots in politics serves as an example of the ideological exclusiveness that surrounded the political factions during the reign of King Sukjong.

Key Word

<Gyeongsanji>, <Seongjuji>, <Seongsanji>, private compilation of county gazette, Sangdeoksa

- 논문투고일 : 2016.1.11. 심사완료일 : 2016.2.1. 게재결정일 : 2016.2.12.